

불교신협 '합병' 성의신협

불교신협이 성의신협과의 합병에 성공해 총 자산규모 1540억원, 내부 적립금 40억여 원의 거대신협으로 거듭났다.

합병을 바탕으로 보다 탄탄해진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타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종교시설 담보대출도 가능해졌다. 또한 부산진구 초읍본점 및 연지점, 양정지점 등 부산지역 3곳을 불자 고객들을 위한 불교전문 지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 건설 원력으로 도량개방·건축 등 불사 계속돼

2008 부산불교계 결산 ③ - 수행환경 훼손 사찰 인근 건축 문제 여전히지만 다양한 불사 일궈

불사분야

미국발 경제위기로 환율 상승, 주가 폭락 등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한국경제는 지금 공황상태에 빠졌다. 12월 18일부터 GM대우차 군산, 부평공장의 생산라인이 '울-스톱' 됐고, 쌍용자동차와 LG디스플레이 파주LCD공장도 속속 가동을 멈췄다. 각 언론들은 잇달아 내년 경제상황을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2/4분기 이후 불어 닥친 극심한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불교수도 부산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불자들의 원력을 담은 불사는 계속됐다. 부산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자존대대 이어갈 소중한 신행공간이 될 2008년 불사의 현황을 정리한다.

#통도사 사리탑 개방 정비

2008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었다. 1년에 단 3번만 공개되던 '불보' 사리탑을 완전 개방하고 이곳 불전함에 모인 3억여 원을 불유이웃을 위해 전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차밭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큰 사진). 벽송사 벽송선원 낙성식(위), 홍법사 대웅전 조감도(아래).

액 기부하며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었다. 무분별하게 심어졌던 외래종 나무들은 육림 차원에서 정리하는 한편 한국 나무들을 곳곳에 심고, 절 뒷자락 습지에는 5만여 평의 연꽃단지과 매실, 차밭을 조성해 두루미 등의 야생동물들이 돌아왔다. 또한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보수해 이용객

의 편의를 위한 명상센터 및 휴게실 등으로 새롭게 꾸몄다.

#도량 불국토로 꾸미는 불사

홍법사주지 심산은 6월 27일 신행과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대웅보전 '국제 종합불교센터'의 건립 기공식을 열고 12월 31일 개관을 앞두

고 있다. 이번 대웅보전 불사는 기존의 기도와 법회만을 위한 법당의 역할을 넘어 제사와 참선, 속식, 취미 생활 등 문화적 기능까지 두루 갖추게 된다. 대지면적 600평, 4층 높이 규모에 옥상의 대불(3층 규모)을 모시고 내년 부산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함양 벽송사(선원장 월암)는 10월 5일 벽송선원 낙성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단장한 벽송사 도량에서 '제2회 벽송선회'와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각각 원만 회향했다. 그동안 수많은 조사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선교경수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 간화선의 근본도량으로 이번 중창불사를 통해 벽송사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다.

해월정사(주지 천재)는 성철 스님 열반 15주기를 맞아 봉헌관을 준공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삶의 흔적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천필 500여 점의 불안채 한국 현대불교사의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진각종 명륜심인당은 동래구 명륜동에 신축 심인당 현공불사를 회향했다.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심인당 및 부산교구청, 법당실, 자성학교 등을 갖췄다.

#도심포교도량 속속 개원

해운대 센텀시티 내 도심포교의 새 지평을 열 도량도 속속 문을 열었다. 부처님마를 분원 자성불선원(주지 효범)이 9월 27일 센텀IS타워 내

에 입소식을 갖고 폭넓은 도심포교에 나섰다. 같은날 해운대 선프리카에서는 대각장사(주지 법각)가 개원해 부산의 첨단산업단지 센텀시티에 불법을 전하고 있다.

안국선원(선원장 수범)의 '안국불교대학'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불사가 진행 중이다. 2010년 첫 강좌를 열고 종교와 종파를 떠나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수행환경 해치는 건축 문제

도량을 해치는 교회 신축이나 케이블 설치 논란 등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았다. 동래 원광사(주지 인오)는 '엮어지면 코 닿을' 곳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교회가 신축될 예정이다. 사찰과 교회 모두 신행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해 지난 2001년 대법원에서 소송해 허가가 나지 않았던 사안이 7년이 지난 올해 신축 허가가 난 것. 교회가 완공되면 절 앞마당에서 십자가를 마주하게 된다고 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부산불교교육원

송년음악회

부산불교교육원(회주 대성)은 12월 17일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상무 스님을 초청해 '홀로 걷는 비구' '삼사라' '대금시나위' 등을 연주했다. 또 특별 출연한 해광 스님의 가요 메들리와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 기자

안국불교대학 내년 9월 개교

'화합과 상생' 주제 설계

부산 간화선 참선도량 안국선원의 숙원사업이던 안국불교대학이 내년 9월 문을 연다.

안국선원(선원장 수범)은 12월 10일 오후 2시 연제구 거제동에서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첫 삽을 떴다.

'화합과 상생'이란 주제로 설계된 안국불교대학은 총 면적 900평, 4층 규모의 연구동 3개동이 연결된 구조로 옥상에는 3층 높이의 티타늄 원형들이 설치된다. 연구동에는 법당, 교수실 및 각종 연구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 불교 학술연구 및 전문 교육 시설이 마련된다.

안국선원이 간화선 수행 중심 도량이었다면 안국불교대학은 조계종 중지종풍을 따라 불교 전문교육 및



12월 10일 열린 안국불교대학 기공식.

도심포교형 맞춤 법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산중이 아닌 지하 1호선 교대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만큼 적극적인 포교의 역할도 가능하다.

안국불교대학 학장 무관 스님은 "우리 대학은 종교를 떠나 불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공부하려 올 수 있는 열린 도량"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동제시루 반환하라"

범어사 부산시립박물관에 반환청구소송

선찰대부산 범어사(주지 정)에는 도난 논란에 휩싸인 동제시루를 보관 중인 부산시립박물관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범어사는 "동제시루는 부산시립박물관이 2000년 2월 어느 수집가로부터 1억3000만원에 매입한 뒤, 2001년 시지정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이는 범어사에서 도난당한 '장물'이라며 동제시루 2점을 범어사에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립박물관 측은 "동제시루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범어사 측이 이제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동제시루의 반환 문제

는 2004년 부산시의회 김청룡 의원이 도난품일 것이란 의문을 제기할 때부터 있어왔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제시루는 1664년 제작된 떡을 찧는 기구로 표면에 한문으로 '경상도 동래북령 금정산 범어사'로 시작되는 18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시루의 제작처와 제작시기, 시주자 및 시루 제작을 전후한 시기의 범어사 주지스님들의 법함 등이 기재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범어사는 "이런 명문을 통해 엄연히 범어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동제시루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박물관 측은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 따스한 만남

여여선원복지회·혜원·양정노인센터·용호복지관

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부산지역 불교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간의 만남이 마련됐다.

여여선원복지회(원장 정)는 12월 11일 '제4회 따스한 가슴으로 세상을 열어가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만남'을 개최했다. (사)부산진구사회복지협의회, 한여울복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바른길병원과 자매결연 체결, 자원봉사자 선서, 우수봉사자 시상 및 배지 전달 등 그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혜원(이사장 원)은 12월 15일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로 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쌍계사 조

실 고산 스님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고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희생이 아니라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보살행"이라며 1년 동안 자비행을 실천한 이들을 격려했다.

양정제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장)는 12월 18일 삼성컨벤션홀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150여 명을 초청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시상식, 실천 현장 동영상 관람, 인증배지 전달 등이 마련됐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



여여선원 복지회가 개최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만남 행사.

상)은 12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2008년 자원봉사자, 후원자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지역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영상상 상영, 우수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패 전달, 배지 전달식,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전달, 홍보대사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지원 기자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종호종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